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3) 논산 쌍계사 대웅전

반복과 대칭, 회전 연속... 洋洋한 법계

양양



대웅전 내진영역의 우물천정. 총 108칸의 우물반자에 넝쿨형 영기문을 배풀었다. 천정의 봉황조형은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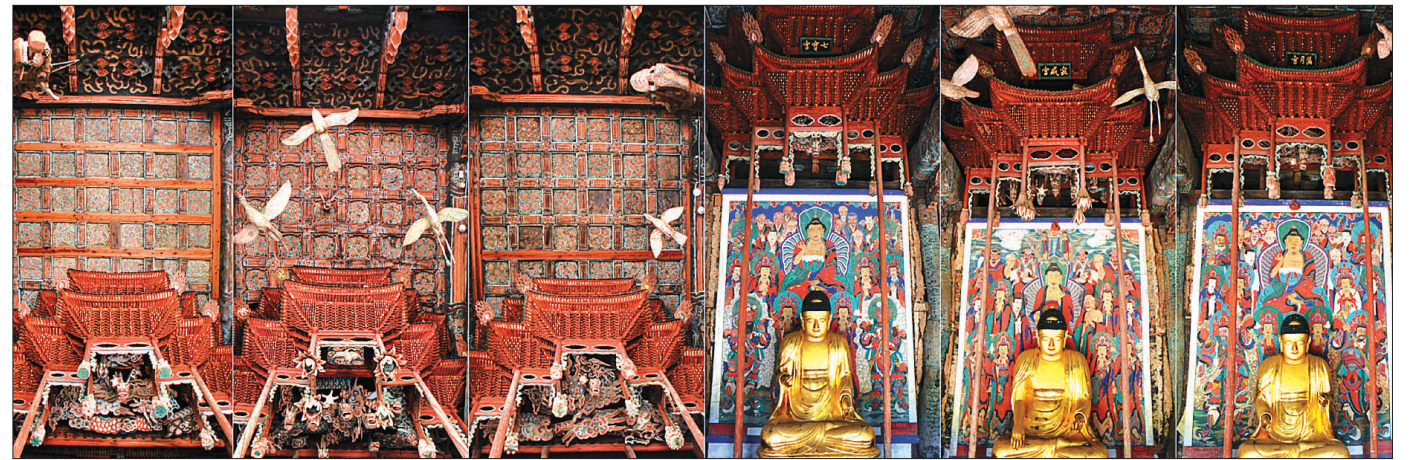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아미타여래, 석가여래, 약사여래세계의 천정과 단침, 후불탱의 모습. 보궁의 이름을 차례로 칠보궁, 적멸궁, 만월궁으로 밝히고 있다. 전 등사 약사전에서 그 사례가 보인다.

불전 장식화... 자유와 대체로 추구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영조 14년(1738년)에 중건된 조선 후기 건물이다. 1970년대 대웅전 보수공사 때, 1738년의 상량문 기록인 <은진쌍계사중창기>가 발견되었다. "사방 산이 험하여 민동산이다. 대웅전은 본시 2층이었으나, 지금은 높은 기둥이 필만한 목재가 없어 단층으로 고쳐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주(高柱)로 삼을 재목이 없어 2층 건물을 단층으로 고쳐 지었다는 것이다. 건물의 칸 수와 평면규모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17, 18세기 조선 중후기 불전양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낭만주의적 장식화가 고스란히 수용되었다.

보다 밝게 하기위해 섬세한 장식물을 갖춘 전면 창호의 분함문으로 변화했다.
중심불전에 건축역량 집중
사회전반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사찰의 중심불전에 여러 불보살의 세계를 통합시켰고,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등이 황으로, 종으로 한 불전에 결합되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중심불전에 건축역량이 쏟아져 부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 이

축물들이다. 한 시대 마음의 자내증으로 구현되었다.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양식으로 내5출목을 갖추었다. 첫 시선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색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창호의 꽃살문이다. 10분합문에 6가지 꽃문양을 경영한 무궁무진한 화엄의 꽃이다. 연속과 반복, 대칭으로 불국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모란, 연꽃, 국화라 하지만 실상은 분별 밖의 마음의 꽃이다. 그것은 법의 진리를 드러낸 묘법연화이며, 영산화의 환희의 꽃이며, 지심귀명례로 공양한 세세생생의 현화다. 꽃이 아니라, 진리의 묘법이고, 마음이다. 꽃 너머에 부처께서 상주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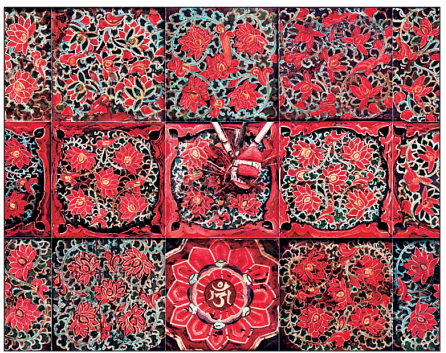
월궁의 형식을 갖춰 한 중심불전에 세 불보살의 세계를 통합하고 있다. 불상과 후불탱화, 불보살의 세계를 일치시킨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 불전에 대웅전, 극락전, 약사전을 통합경영한 셈이다. 이것은 선(禪)과 현제, 내세의 기복이 결합된, 조선 후기 시대상을 반영한 대승불교적 부흥이라 할 것이다. 저마리의 불보살의 세계에는 신령의 기운을 내뿜는 용이 급방이라도 뛰쳐나올 태세고, 천계에는 봉황과 극락조가 상서의 서기를 북돋우고 있다. 현대적 건축구조의 모빌양식까지 구사되었다. 불보살의 집단성에 웅장하고도 드라마틱한 건축장치를 결합해서 종교적 엄숙함과 거룩함을 극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언어예술이 표현할 수 없는 건축조형예술의 힘이다.

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텅 비어 있는데 생명력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미묘하고 불가사의의 힘으로 충만하다. 현묘한 동양적 우주법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사실 언어와 문자는 이분법적이다. 언어로 대상을 드러내는 순간, 대상은 둘로 나누어진다. 분별하고 차별한다. 궁극은 문자와 언어의 경계 밖이다. 불교법자와 조형언어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 침묵한 내면의 힘을 지닌다. 빛반자에 법계의 적멸이 깃들

원형의 소란반자를 가설한 후, 문양을 배풀어 조영의 중심을 밝히고 있다. 채색원리는 붉은색과 청색계열의 보색효과를 견지하였다. 문양의 세계는 세 곳에 각각 36칸씩, 108칸에 반복과 대칭, 회전을 거듭하면서 막힘없이 양양(洋洋)하다. 에너지로 충만한 넝쿨 영기문이 불보살의 불국토에 신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한가운데 우물반자에서는 천정을 뚫고 용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천정 너머에도 신령의 기운이 충만해 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 표현방식이 파격적이다. 내진주 천정에 배운 문양은 두 가지다. 붉은 꽃잎으로 만개한 것과 털 핀 검은 꽃잎의 일부를 가진 두 형태다. 대위법(對位法)적인 표현이 눈에 띈다. 한 틀에 대비되는 색과 형태를 동시에 구현하여 표현의 풍부함과 생동감을 갖추게 했다.

17,18세기 낭만주의적 장식화 경향
대흥사, 직지사 등 불전양식 비스

불전건축물의 장식화의 경향은 원당사찰 등에서 나타나는 절제와 규범보다는 자유분방하고 명랑하며 대체로 자유추구하는 방향으로 서남해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서민의 경제력이 사찰조영에 투입되었으며, 수륙재, 천도재, 기복신앙 등 민중적 토착요소가 불교에 수용되었다. 건축내부의 변화도 그에 상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불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변화의 중심은 예불공간의 확대와 유용성 확보, 그리고 장식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후불벽은 뒤로 밀려나고, 내부바닥은 전돌에서 마루바닥으로 바뀌었다. 작은 불막은 여러 공양물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높고 길다란 불단으로 나타났으며, 창호는 내부를



내진주 영역 세 곳에 조영된 천정장엄 세부



좌우퇴칸 천정의 빛반자 영기문과 범자연화문



대웅전 내부장엄

어간과 양형간은 내진주 영역이고, 좌우 끝자락의 양퇴칸은 외진주 영역이다. 3칸의 내진주 영역에 고주를 세우고, 길다란 불단을 마련해서 후불벽 세 칸 간간에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약사여래의 세 부처님을 모셨다. 세 부처님은 각각의 칸에 독립된 후불탱화와 아(亞)자형 보궁의 중층단집을 갖추었다. 이렇게 삼존불에 독립된 단집을 따로 갖춘 형식은 구례 화엄사 대웅전과 김천 직지사 대웅전,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쌍계사의 경우 독립된 보궁의 세계를 별칭으로 밝혀두어 주목을 끈다. 항좌좌에서부터, 아미타여래-아미타불회도-칠보궁, 석가여래-영산회상도-적멸궁, 약사여래-약사불회도-만

어 있다. 블랙홀의 어둠처럼 불가사의하고 아스라한 깊이의 세계다.
내진주 영역의 우물천정은 어간과 좌우 협간 세 칸, 좌우 퇴칸 일부에 경영했다. 이 세계는 증득된 자내증의 세계다. 퇴칸의 우물반자에 배운 문양은 씨방부문에 범자종자(梵字種子) '옴'과 '나' 등의 한 자(字)를 새겨넣은 연화문이다. 그 범자들은 천수경의 육자대명왕진언의 부분들이다. 한 자 한 자가 불보살의 세계이고 미묘본심이다. 그런데 연판 틀레의 여섯 곳에서 여의보주가 나와 연화에 담긴 관념적 깊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정마음에서 무위의 침묵으로 홀연히 드러낸 진리,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연기법계가 아닐 수 없다.

현정됨고 나오는 용, 파격적 표현
내진주영역의 우물천정은 밀교적 오대오불(五大五佛)의 세계를 영기문넝쿨로 표현하고 있다. 오대오불은 금강계단다라의 세계다. 방위에 따른 불보살의 공덕이 총집된 세계다. 중앙과 사방위에 불보살을 상징하는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양현간의 연화문은 정사각형 우물반자를 안에 그렸지만, 중앙간의 연화문은 우물반자 안에 다시



노재학 불교미술사작가

창간 20주년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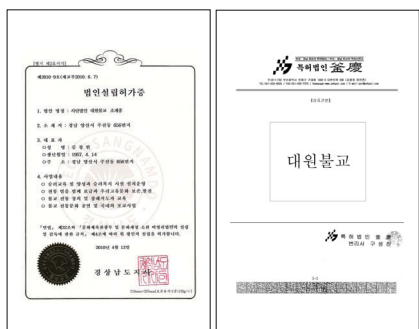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정(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roles: 원로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문, 승정원장, 총회장, 호법원장, 감찰원장, 사정원장, 회계원, 문화원, 감사원, 포교원, 기획원, 회계원장, 문화원장, 감사원장, 포교원장, 기획원장, 총무원, 총무원장, 부원장, 전북총무원장, 진주총무원장, 사무총장, 부원장, 진남총무원장,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장, 중앙행정위원장, 중앙운영위원장, 중앙총무원위원장, 중앙정책위원장, 중앙총무원회, 총무원, 총무원장, 부원장,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정(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시부 제2총무원 해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교육원 051)893-3346, 학창(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시 진구 당감 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